

演 題 抄 錄

- 1 -

유행성 출혈열의 임상상

경희의대 신장내과

최철준 · 신동복 · 최화립

권오선 · 임천규 · 김명재

연자들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유행성 출혈열로 진단되어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101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관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행성 출혈열은 30대 남자와 40대 여자에 빈발하였으며 남녀비는 4:1이었다.

2) 임상상으로 발열이 빈발하여 88.8%였고 구토, 복통, 결막과 액와의 점상출혈, 설사, 혈뇨, 기침등의 순이었다.

3) 검사소견은 백혈구수는 70.4%에서 증가하였고 혈소판수는 57.7%에서 70,000/mm³미만이었다. FDP의 상승은 10.2%, Fibrinogen의 상승은 2%였으며 두에에서 측정된 PF₄는 정상범위였고 β-TG는 모두 증가되어 있었다. 혈청 C₃는 20.0%, C₄는 21.4%에서 저하되어 있었다.

노비증은 평균 1.021이었고 노단백은 거의 전례에서, 혈뇨는 75.5%에서, 농뇨는 35.7%에서 관찰되었다. 고빌리루빈혈증은 약 5%에서, GOT, GPT의 상승은 약 반수에서, BUN, creatinine의 상승은 거의 전례에서 관찰되었다. 고칼륨혈증은 16.3%에서, 공복시 고혈당증은 17.3%에서, 고칼슘혈증은 73.5%에서, 고인산혈증은 48.1%에서 관찰되었다.

4) 췌노환자군에서 노 Osmolality는 모두 350 mOsm/kg 이하로 낮았고 노 Na는 70.2%에서 40 mEq/L 이상으로 높았으며 Renal failure index는 87.5%에서 1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5) 흉부 X선 촬영에서 57.5%가 비정상소견을 보였고 그중에서 흉막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복부초음파 검사상 90.6%가 비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그중에서 echo 증가 소견이 가장 많았다.

6) 임상경과는 발열기는 평균 7.3일, 췌노기는 평균 5.4일이었다. 저혈압은 38%에서 관찰되었고 사망율은

9.4%이었다. 치료로서 혈액투석은 39례(40%)에서 시행했으며 대부분 5회이하의 혈액투석을 받았다.

- 2 -

한국형 출혈열 14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고신의대 내과

육동민 · 홍관표 · 김인영

박진석 · 이재우 · 이시래

한국형 출혈열은 근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발생분포를 보이고 발생빈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에 연자들은 역학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그 발생빈도가 낮은 경남 및 경북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한국형 출혈열 환자중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최근 3년간 고신의대 내과에서 경험한 14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임상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지역별분포를 보면 함안군 2례, 함천군, 진양군, 산청군, 거창군, 사천군, 하동군, 진주시, 마산시, 진해시 각 1례로 경남에서 11례, 월성군, 영양군, 경주시 각 1례로 경북에서 3례, 모두 14례였으며 그중 농촌형이 10례(71.4%), 도시형이 4례(28.6%)였고, 월별빈도를 보면 7월이 2례(14.3%), 11월이 4례(28.6%), 12월이 5례(35.7%)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례(35.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30대 및 50대가 각각 3례(21.4%)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2례(85.7%), 여자가 2례(14.3%)로 남녀비는 6:1이었다.

입원시 병기로는 췌노기가 9례(64.3%)로 가장 많았고, 이노기 4례(28.6%), 저혈압기 1례(7.1%)였다.

주요임상소견으로는 오심 11례(78.6%), 복통 10례(71.4%), 복부팽만감 9례(64.3%), 결막출혈 및 구토가 각각 8례(57.1%), 요통, 두통 및 근육통이 각각 7례(50.0%), 안면부종이 6례(42.9%), 결막하출혈이 5례(35.7%)였다.

검사실성적으로는 말초혈액검사상 혈색소치가 16 gm%이상의 증가를 보인 경우가 3례(21.4%), 백혈구증다증을 보인 경우는 11례(78.6%), 혈소판감소증은 8례(57.1%)에서 볼 수 있었다. 뇨검사상 단백뇨 및 혈

도시형 한국형 출혈열의 임상상에 관한 연구

고려의대 내과

최원홍 · 조원웅 · 이윤석

임기권 · 김민자 · 김형규

노는 전례에서 관찰되었으며 단백뇨 卍~卍가 12례 (85.7%), 현미경적 적혈구수 20/HPF 이상은 10례 (71.4%)였다. 입원시 혈청 creatinine치는 14례 모두에서 증가되었고 혈청 K치는 5.0 mEq/l 이상이 5례 (35.7%), 3.5 mEq/l 이하가 2례 (14.3%)에서 있었으며, 혈청 Na치는 135 mEq/l 이하가 11례 (78.6%)였다. 간기능검사상 혈청총단백량이 6.0 gm% 이하로 감소된 경우는 5례 (35.7%)였고, 10례 (71.4%)에서 혈청 albumin 감소를 보였으며, SGOT가 40단위이상 증가한 경우가 7례 (50.0%), 혈청 bilirubin치의 증가를 보인 경우는 2례였다.

한탄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양성율을 보던 검사한 11례중 10례 (90.9%)에서 양성이었다, 1례 (9.1%)는 1주간격으로 펄노기 및 이노기에 각각 한번씩 검사하였으나 두번 다 음성이었다.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고혈압이 9례 (64.3%), 간염 4례 (28.6%), 상부위장관출혈 2례 (14.3%), 빈혈 2례 (14.3%), 폐부종 및 경련이 각각 1례 (7.1%)에서 관찰되었으며 임상경과로는 14례 모두에서 호전되었는데 이중 5례 (35.7%)에서 급성복막투석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9례 (64.3%)는 투석없이 회복되었다.

- 3 -

소아의 한국형 출혈열 5례

연세의대 소아과

김환민 · 강신해 · 이재승 · 김병길

병 리 과

정 현 주 · 최 인 준

한국형 출혈열은 그 빈도가 연간 인구 100,000명당 1.39명으로 낮으나, 소아연령에서는 그 빈도가 훨씬 낮아 10세이하에서는 연간 인구 100,000명당 0.03명, 11세에서 20세까지는 0.59명으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자들은 최근에 5례의 한국형 출혈열 환아를 경험하였으며, 모두 남자로서 연령은 11세에서 14세까지였고, 10월과 11월에 발병하였었다. 증례들의 임상 및 검사소견의 요약은 다음 Table 1과 같다.

한국형 출혈열은 등출취물 대개체로 하여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나, 최근 도시에서의 발생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발병전에 시의나 농촌에 간 일이 없는 도시 거주환자에서 발병하는 경우, 농촌형과 구별하여 도시형 한국형 출혈열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그 발병경로나 임상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연자들은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던 한국형 출혈열환자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발병전 농촌지역에 거주하였거나 여행한 적이 없던 29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당시의 이학적 소견과 검사소견을 펄노군과 비펄노군으로 나누어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 몇가지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관찰기간동안 입원하였던 한국형 출혈열 환자 총 131예중 상기 기술소견에 합당하며 도시형으로 생각되는 29예 (22.1%)를 대상으로 하였다.

2) 29예 중 남자 24예 (15세~68세), 여자 5예 (28세~61세)였으며, 평균연령은 37.3±5.0세이었다.

3) 그중 펄노군은 15예 (51.7%), 비펄노군은 14예 (48.3%)였으며 이학적 소견과 검사 소견은 Table과 같다.

Table. Incidence of Clinical and Laboratory Abnormalities in Urban Type K.H. Fever with Comparison between Oliguric and Non-oliguric Group

Parameters	Oliguric group	Non-oliguric group
Creatinine	6.15 ±3.56 mg/dl	5.66 ±3.56 mg/dl
Fever	46.7%	28.6%
Abd. pain	93.3%	78.6%
Hemorrhagic-tendency	93.3%	50.0%
Leukocytosis	86.7%	71.4%
Thrombocytopenia	46.7%	28.6%
GOT elevation	60.0%	21.0%
Proteinuria	100.0%	85.7%
Hematuria	86.7%	92.8%